

##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하늘문 교회' 교패와 묵상집(EM) 여분이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회텃밭이 '하늘농원'이란 이름으로 잘 조성되었습니다. 주말농장으로 분양하고자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권용기 집사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다음 주일낮예배 기도담당은 신재준 집사님입니다. 오후찬양예배 기도담당은 황희용 권사님입니다.
5. '봄철 가정심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해당 가정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8일(주일)-신동기 집사님 가정, 4월 14일(토)-오승현 집사님 가정입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3월 25일	4월 1일	4월 8일	4월 15일
예배기도(오전)		이준화 집사	김환엽 집사	박성대 집사	신재준 집사
예배기도(오후)		목장주일	김금옥 권사	정진숙 권사	황희용 권사
주일식사담당		헵시바 목장 (김금옥 권사)	양떼 목장 (황희용 권사)	늬바 목장 (유숙정 권사)	로뎀 목장 (정진숙 권사)
토요일청소		갈렙 목장	청년 목장	돌로스 목장	주사랑 목장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비전 2020을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봄철 가정심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쉼터(국내) 사역자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 HANEULMUN VISION MESSAGE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 영 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197장 (통 178장)	다같이
대표기도	박성대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출 12:37-51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징검다리를 건너서’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 회 소 식 .....	다	같	이	
* 결 단 송 .....	620장	다	같	이
* 축 도 .....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그가태초에하나님과함께계셨고  
만물이그로말미암아지은바되었으니하나도그가없이는된것이  
없느니라  
그안에생명이있었으니이생명이있었으니이생명은사람들의빛  
이라빛이어둠에비치되어둠이깨닫지못하더라  
요 1장 2절~5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 영 전도사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오승현집사	다같이
묵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찬송	214장 (통 349장)	다같이
기도	인도자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롬 2:25-29	인도자
말씀선포	‘하나님에게서나라’	허영전도사
기도	허영전도사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302장 (통 408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 요 예 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6:22-40 ‘생명의 떡’(2)

금 요 기 도 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6)

새 벽 기 도 회 새벽 5:30 시편 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시 70:1-5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1)-(5)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꽃샘 추위’

이맘때쯤 되면 살구꽃이 피는지 궁금해진다. 지난 해 이맘때쯤 교회마당 울타리에 심겨진 두 그루의 살구나무에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기억이 남아있다. 교회를 이전할 때부터 심겨져 있었던 살구나무 두 그루 중, 한 그루가 바깥세상이 그리운지 자꾸만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기울어진 만큼 저러다가 혹 쓰러지는 것은 아닐지 자꾸만 애를 태운다. 그러던 차에, 때마침 교회텃밭을 갈아엎을 때 붙었던 굴착기로 살구나무를 똑바로 세웠다.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두 그루의 살구나무가 똑 바로, 서로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 든든해 보인다. 이제 지난 해 보았던 살구꽃이 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기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보란 듯이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흰색과 분홍색이 어우러져 빛어내는 빛깔이 얼마나 고운지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마냥 보았다. 조금 늦었지만 살구나무 사이 에다 사다리를 놓고는 비쪽이 솟아오른 가지랑, 맥없이 아래로 처진 가지를 손이 닿는데 까지는 잘라 주었다. 그렇게 애쓴 보람이 있는지 초저녁 달빛을 받을 때면, 꽃을 활짝 핀 모습이 이전보다 훨씬 더 빛나 보이는 자태를 뽐내었다. 하지만 이도 잠깐, 봄비가 내린 뒤에 찾아온 갑작스런 추위로 그렇게 화려했던 살구꽃은 생기를 잃고 말았다. 그뿐이라. 살구나무 아래는 떨어진 꽃들이 지천으로 널브러졌다.

이래저래 불편한 심기가 드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가 보다. 그래서 일까. 종종 우리 삶이 힘들다고 푸념하는 소리 하거나 듣곤 한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사느냐고. 왜 나만 힘든 인생을 사느냐고.” 비록 지금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이제 겨울은 지나갔고, 완연한 봄기운이 뽐치는 한가운데 서 있다. 흔히 말하기를 인생을 바다를 노 저어 가는 여정에 비유하곤 한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예전 인생 여정이란 무작위로 불어 닳치는 폭풍을 그냥 곧 대로 맞이하며 속명으로 여기고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을 붙들고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꽃샘추위도 주님의 열기로 제법 훈훈해질 것이다.

Written by 허영진